

등록번호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131
등록일자	2015.02.26
결재일자	2015.02.27
공개구분	공개

사무원	기획개발팀장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센터장	대표이사	
조운선	황미경	심재진	박춘배	02/27
협 조				



## 제4차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2015 . 2 . 26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 제4차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 '15.2.23(월) 10:30 / 재단 회의실 (3F) 누리실
- 주요내용
  - '15년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 보고 및 의견 수렴

### □ 위원 참석

- 총 12명중 9명 참석
  - 불참(3명) 권안석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기획조정위원회  
박덕진 경기일자리지원센터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 학부
- ※ 회의 종료 후 '술가'에서 오찬 및 환담

### □ 주요 건의(의견) 및 조치 의견

건의자	건의(의견)	조치의견
김정호	▪ 베이비부머에 대한 교육이 마련 바람직	▪ 사업 계획에 기 반영
	▪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체계 마련 필요	▪ 개발원과 추진 협의
	▪ 고유사업에 대한 관심 필요	▪ 개발원에 건의
박노숙	▪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정립 필요	▪ 사업 추진시 반영
이병학	▪ 노인,자활,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 확대 및 연합하는 행사 추진 필요	▪ 사업 추진시 반영
이상권	▪ 경비업체 일자리 취업 교육 추진 필요, 제도적 개선 필요	▪ 추진 가능성 검토, 도와 협의
황경란	▪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공사례, 요인 분석 필요	▪ 사업 추진시 반영
정진율	▪ 수행기관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본부와 협력, 상호보완적 공동 진행 요구	▪ 사업 추진시 반영

□ 집행액 : 840,000원

○ 회의 참석 수당 : 100,000원 x 5명 = 500,000원

○ 식 대 : 340,000원

별첨 1. 회의사진 1부.

2. 회의록 1부. 끝.

<별첨 1>

## 회의 사진



<별첨 2>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제4차 운영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15. 2. 23(月) 10:30
- 장 소 : 경기복지재단 3층 회의실 (누리실)

## I. 성원보고

○사회 (기획개발팀장 황미경) :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기획개발팀장 황미경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위원회 운영내규 제7조에 따라 재직위원12인중 재석위원 9인,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2015년도 사업 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부터 회의 진행은 류재구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 II. 개회

○ 류재구 위원장 : 좋은 경험들을 회의를 통해서 경기도 내에 노인일자리가 많이 창출될수 있으면 좋겠고, 제 경험에 의하면, 회의가 자주 열리고 의견 교환 기회가 많지 않아서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점 안타깝습니다. 또한 사업이 이행된 다음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운영위원회에서는 별로 없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1년에 한번 가는거 보다 몇 번이라도 해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한 의견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좋은 말씀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4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황미경 기획개발팀장 나오셔서 '15년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미경 팀장 설명)

○ 류재구 위원장 : 내용에 대해 위원들께서는 질문이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력개발원 정진울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진울 위원 : 안녕하십니까? 노인인력개발원 경인지역본부 정진울 본부장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재작년에 한번 위원회에 참석했었고, 제가 1년동안 다른곳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갔

다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랑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도 내 일자리수행기관은 일자리센터가 지원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한거 같은데 사업비가 줄어서 아쉽습니다. 모자라는 사업비는 고령자친화기업이라던지 여러 가지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개발원이 노력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장 :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회장 김정호 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 현장에서는 명칭도 바뀌기 시작하고, 또 내년부터는 교육형으로 어르신들 또한 기초노령연금 상관없이 백프로 다 수령을 하는 일자리다 보니까 베이비부머에 대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준비하고 있어서 발빠르게 움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 하는데 무언가 지금 더딘 기간이 있다고 생각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답습을 많이 해왔던 기관인거 같습니다. 경험도 없고 짧은 시간안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부분에서 만들어 왔었고, 또 우리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수행기관이 다른지역에 잘되는 부분이 있으면 잘되는 부분을 답습 하고 , 카페가 잘된다 싶으면 카페가 붐을 일으켰고, 이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곳도 있고, 대게 모방을 하다보니까 노하우 없이 만들어 진다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를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현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만에 특화된 사업을 하려면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만들어내고 시장성, 대량생산에서 약하기 때문에 공정 과정 속에 한부분을 가져오는게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에 있는 김 부각 공장을 보시면 연매출이 15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지역에 김 부각 명인이 있습니다. 명인을 관장이 찾아가서 그 라인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라인을 가져와 만들어서 판매하는게 아니라 그공장에 다시 주는 겁니다. 공장에서는 자기 한 생성부분을 떼어 준겁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이 되고 명인이름으로 달고 나가는거고, 수행기관 이름을 달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시장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거 처럼 경기도 안에 경기도권에 공장도 있고 경기도에 명인이 얼마나 등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경기도 내 등록되어 있는 음식 식품 명인이라던가 아니면 큰 공장이 있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물론 수행기관 역할도 필요하지만 도 차원에서 협력을 할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내 줄수만 있다면 일자리가 좀더 안정적이고 제고 없이 생산라인을 가동할수 있고, 공장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 시니어인턴십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부각을 시킨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습하는 일자리는 지양하고 협력체계로 갈수 있는 MOU를 체결하고 생산라인을 가동 하는 일자리가 생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원체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현장에 있는 바램입니다.

○ 정진울 위원 :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원에서 지원하는 고령자친화기업사업입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개발원에서 한 100억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어르신이 70%정도 고용을 해야하고 30%정도는 어르신만 가지고는 일자리가 힘드니까 젊은 사람도 쓰고 해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입니다. 진주에 있다가 커져서 거창에 큰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올해도 고령자친화기업 2월 말에 공모를 합니다. 경기도에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부천에 한곳, 고양에 한곳, 시흥에 한곳, 화성, 의왕 이렇게 5곳을 고령자친화기업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것이 잘 되면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장 : 경기도 차원에서 경인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지원이나 대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강윤구 위원 : 네, 일을 같이 해보고 내용이 괜찮으면 정진울 본부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장 : 박노숙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숙 위원 :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만두가게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센터가 1억 3억 5억 매출을 하면 매출탑 상을 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상장이라도 주면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겠다 해서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목표를 세우고 나서 하니까 훨씬 더 매출량이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미처 해주



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자리는 국가 정책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 하나로 도청 차원에서 신규 과를 만들었고, 그차원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도 벌써 10여년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해서 갈건가 국가, 국가기관이 하고 있는 인력개발원의 역할,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틈새를 어떻게 강화시켜줄까 이고민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은 저희 현장에서는 멀게 느껴집니다. 중간다리 역할 하는곳이 일자리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과 지원센터와의 시너지, 지원센터가 복지재단과의 시너지, 복지재단은 도와 도의회와의 시너지, 도에서는 국가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접근하기 어려운 윗단계까지 연결고리를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정책이 나와줘야 할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류재구 위원장 : 팀장님, 올해 매출탑 계획이 있으신가요?

○ 황미경 기획개발팀장 : 네, 저희가 지금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장 : 아까 정진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도 가능 하십니까?

○ 황미경 기획개발팀장 : 기대하시는거 만큼 현장에 상금을 드리는거는 조금 어려울거 같습니다. 3억까지 매출 올라간 곳이 한 4개소 정도 있구요 2억 매출이 2개소, 1억이상은 9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장 : 현장에 맞는 상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기관이 1억, 2억 매출을 올릴 욕구가 생길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미경 기획개발팀장 : 네,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논의중에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장 : 자, 이제 이병학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이병학 위원** : 저는 취약계층간의 연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 전에 서로좋은가게를 홍보 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거 보다 매출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활, 노인, 장애인이 생산품 판로가 확대되는 그런 계획을 좀 가져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노인, 장애인, 자활 생산품 판매 행사를 했었습니다. 작년은 장애인쪽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회적기업이 도와서 노인하고 같이 했었는데 홍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자활이 연합하는 행사를 추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부서가 달라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적일자리과에서 총괄 하시니까 많이 도움을 주실거 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장** :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권 위원님 말씀 해주세요.

○ **이상권 위원** :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어르신들 취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경비든 주차요원 등 취업을 하려면 취업하기 전에 미리 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강화지침이 내려와서 새롭게 취업을 하시려고 해도 어르신들이 교육기관이 어디인지 잘 모르시고, 작년에 노인인력개발원에 문의를 해보니까 경비교육 이수 받는 거를 신청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기가 5년마다 한번씩 있는데 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교육기관을 지정받았지만 교육을 시켜본 사례가 없다고 들었고, 어르신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봐도 모든 시설이 갖춰져야지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원에 협조를 해서 장소 물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정진을 위원** : 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에 수요가 많지 않아서 호남본부에서만 교육을 합니다. 타지역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그동안 교육을 안했습니다. 타지역본부는 거의 접었고, 호남지역본부만 수요가 많아서 교육을 했는데 경기복지재단이라면 충분히 가능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미경 기획개발 팀장** : 저희가 작년에 개발원하고 논의도 하고 알아봤는데 교육센터로 지정받

아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게 5년 주기로 센터를 지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 이구요. 그래서 경인지역본부도 센터는 지정이 되어있는데 교육같은 경우는 그때 지정받으셨을 때에 그 공간, 그 교육 장소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 경비업체의 경비원 고용 의무사항으로 일반개인이 사전교육을 임의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부 환급과정으로 교육장소에 대한 제한이 있어 임의로 장소 이동 교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에 신규를 받게 되니까 저희가 알아봐서 교육 장소 정보를 저희가 제공한다든지, 저희가 지정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장 : 이부분은 시 군에서 지정장소를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 예비 교육장을 이용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개발원과 같이 수요를 찾고, 시군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경란 위원 : 저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이제 복지부에 노인일자리라라는 명칭이 바뀌면서 기능과 역할이 조금씩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호 관장님께서 얘기하신거와 같이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고령자친화기업처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된 기관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령자친화기업처럼 하나의 라인을 가져오는 것은 안정적인긴 하지만 그 지역에서 이제껏 잘 자생이 되었던 것은 그 나름대로의 여권에서 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갈래로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서 만드는데 잘 되는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와 경기복지재단 연구기능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인인력개발원과 분석작업을 같이 해서 경기도 노인일자리사회참여활동이라고 하면 크게 몇가지로 분리를 할건지, 다양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부천이나 시흥처럼 자발적으로 잘되는 노인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장 : 아까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회의가 연초에 한번 하고 나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이 진행이 되는게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회의를 진행해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 문제점을 발견 했습니다.

첫 번째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가 잘 안되는 곳에 위치 하고 있어서 사람이 많이 찾올리가 없고 판로를 일부로 알선 해주면 안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양성이 부족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했는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경험을 살려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정적 문제가 큰거 같고, 두 번째는 아이디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축적된 노하우로 한단계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노숙 위원** : 위원장님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돈 때문에 일을 못하는거는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든 시니어클럽은 자활이든 일단 국가가 기본적인거는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만두가게를 이야기 하지만, 내부에서 토론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하지 않으면 돈주면 끝나는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재정만 낭비되는 일이 거든요 돈을 100만원을 주던 1,000만원을 주던 100만원이 들어갔으면 300만원의 가치를 내야 하는 것이고 1,000만원이 들어갔으면 3,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내야지만 되는게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복지로 가져와서 지역주민들에게 10만원, 30만원이라도 스스로 벌어서 그 어르신들이 가정 내에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할건가 이고민이 들면 돈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저희도 6,000만원 초기투자 비용 받아서 문을 닫을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가 주는 적은 월급이지만 한사람 전담인력을 배치 하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1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럼 한달이면 2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살아 남을수 있는 겁니다. 개인은 살아 남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달 200만원이라는 돈을 국가가 주는 거니까 어르신들에게 30만원이라는 돈을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맡은 현장에서 얼마나 일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는 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호 위원** :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좀 다른 얘기지만,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사업비를 지원해서 성공하는 사업단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숨어있는 사업단이 많습니다. 저희가 말하는게 고유사업이라는건데 고유사업이 언제부턴가 평가에서 빠졌습니다. 고유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유사업은 보조금을 안받습니다. 순수자본입니다. 보조금 자체가 안들어오고 오로지 법인의 영향 아니면 후원을 받아와서 사업단을 만드는 겁니다. 평가를 하자면 고유사업이 매출

높은곳이 이익을 보니까 고유사업을 하지 않는 기관들이 평가가 불공평하다 제안을 해서 뺐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제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지원체계가 아닌 고유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단에 열의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장 : 말씀 감사합니다. 센터에서는 업무협조를 잘해서 사업계획에 플러스가 돼서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말씀 드린 것과 같이 회의로 검증 해볼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 4회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